

모로코인의 裝身具와 化粧에 關한 研究⁺

李 順 洪
誠信女子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f the Personal Ornaments and Make-up of Moroccan⁺

Soon Hong Le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Ornaments are accessories for the decoration of the body or dress. They aren't unavoidably required one, but serve to make one's dress perfect as decorative industrial art objects.

In Morocco, ornaments were initially used as a sign of social position or the class or an incantatory symbol. In effect, they were originally employed to adjust one's dress, not just for decoration, and they were of use for household economy. Gold, silver and handcraft available for exchange were a means of increasing one's property and an indication of social standing and wealth. In particular, the dress and jewelry of a bride was a measure of her family's wealth, regarded as a symbol of her chastity and value.

The ornaments symbolically back up people's faith in supernatural power, and their real value is based on implicit form or way of decoration, not the external shape. Specifically, there is a tendency to use the form of animal as a protector, not one to frighten people. In the artistic tradition of Morocco, fish pattern stands for water and rain, and eagle and bird ar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fate. Scorpion and lizard are depicted as an inquirer of sun, and snake is a symbol of abundance and sexual instinct, being viewed to have an ability to cure disease. Turtle pattern is a symbol of saint because it protects one from the evil. The ornaments are made of gold, silver, amber, clam, garnet, glass, nielle, enamel, glaze, coral or tree, and symbolic patterns are used, including hand(a symbol of five numerals), turtle, lizard, scorpion, eye, triangle, bird and eggs. They are very big and diverse, being categorized into ornaments for the head or the chest, neckless, fibula, earring, bracelet and ring.

For Moroccans, make-up is a sort of instinctive behavior to meet aesthetic and sexual desire. They also wear make-up for practical purpose of protection, intentionally inflict a wound on the skin for ceremonial or religious purpose, paint the skin with pigment, or have the part of the body tattooed for incantatory purpose. All this actions are regarded as make-up. The raw material of cosmetics is aker, a vegetable dye. They get the lips or cheeks turn red and paint eyebrows with yellow saffron powder to have a bad devil lose its strength.

Tattooing is mainly done by women and viewed as a sign of their value or social organization they belong to. Sometimes that is used to represent a woman's being old enough to marry or getting married already or the frequency of marriage. Besides, tattoo is believed to prevent or remedy loose bowels or cough, depending on its location or pattern, and they often change tattoo according to the change of beauty art.

⁺ 본 논문은 2000년도 이세웅박사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I. 서론

장신구로 치장하는 행위는 태고 때부터 지속되어온 인간의 기본 속성이다. 지구상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권 어디에서든 예외 없는 이 동일한 장식 욕구는 각기 고유의 독자적 양식으로, 또 때로는 무역이나 침략 등의 영향요인에 따른 상호 복합적인 성격으로 표출되곤 한다.

최근 디자이너들의 전문성이 세분화되면서 토탈패션보다는 품목별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의상, 부속품, 액세서리 등을 디자인과 색채, 재질을 고려한 패션 연출이란 분야의 전문인은 이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21세기에 돌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새로운 장신구들이 등장하여 코, 혀, 입술, 눈, 배꼽 등의 장식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과거에 찾아 볼 수 없었던 사실들이다. 앞으로 장신구에 대한 선호는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장신구가 다양한 모로코의 장신구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북서단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라바트(Rabate)이다.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무덥고 건조하며 남부로 갈수록 건조기후와 사막기후가 나타난다. 종교는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이며 아랍인과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부형태는 국왕중심제이며 전체인구의 약 40%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며 의류산업은 1970년대 이후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가죽제품, 신발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문화의 특성이 공존하여 아랍풍의 걸옷을 입고 수놓은 Fez 모자를 쓰고 페르시아 풍의 신발을 신고, 거대한 장식이 머리, 가슴, 귀 등에 장식되어 있다.

특히 모로코인은 특이한 화장과 문신을 하고 수많은 장신구는 경제의 축적과 부의 과시 및 악과 질병에서 수호하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 점에 연구의 의를 두고 모로코인의 장신구와 화장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범위와 목적은 신비의 나라 모로코 민속복에 첨가하는 장신구와 화장 및 문신에 대한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역사·지리적 배경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단에 있는 국가로서 동쪽과 남동쪽은 알제리, 남쪽은 서사하라와 접해 있으며 북쪽은 지중해, 서쪽은 대서양에 면해 있으며 지형은 해안저지대와 아틀라스 산맥,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세 주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도는 라바트이고 가장 큰 도시는 관광지로 유명한 카사블랑카이며, 대부분의 주요한 도시들이 해안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458,730km², 인구는 1996년 약 3000만 명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030\$이다.

모로코의 역사는 BC 2000년대말 베르베르(berber)족이 모로코에 들어왔으며, BC 12세기에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교역소를 세웠고, BC 5세기에 카르타고인들이 대서양 연안에 거점을 만들었다. 카르타고가 멸망한 뒤, 베르베르족 왕 주바2세(BC 25~AD 24 재위)가 통치하던 모로코는 로마의 충실한 동맹국이 되었다. 46년 로마는 모로코를 모리타니 속주의 일부로 합병시켰으며, 이 속주는 로마 통치 후반기에 거의 전부 그리스도교화 되었다고 한다.¹⁾ 그러나 대부분 원주민인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되었던 7세기 후반 아랍인이 침입하여 아랍어와 이슬람교를 가지고 들어와 베르베르인 속에 침투, 토착화되었다.

8세기말에 아랍의 지도자인 이드리스 압달라(Moulay Idriss Abdullah)가 모로코를 통일시키고 페스(Fez)를 수도로 정했다. 그 후 여러 이슬람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11~13세기에 걸쳐 흥한 알모라비드(Almoravid) 왕조와 알모하드(Almohade) 왕조(1130~1269)는 모로코·알제리·튀니지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를 지배하에 둔 마그레브 통일국가를 세웠다. 메르니드 왕조(Merimid 1296~1465)때에 세력범위가 현재 모로코의 영토로 거의 정해졌으며 이 시기 모로코에는 이슬람교 신비주의, 즉 수피즘(sufism)이 발달하였다. 메르니드 왕조 몰락 후 모로코는 작은 독립국가들로 나누어 졌다²⁾가 페스에 세워진 사드 왕조(Saad 1549~1659)는 스페인·포르투갈을 격퇴하였으며 모로코의 독립을 유지하였다.

그 뒤로는 알라위(Alawi)의 몰라이 이스마일 황제(Moulay Ismail 1672-1727)는 모로코 역사에 있어서 가

장 길고 포악한 지배자중 하나이다. 그는 탕헤르(Tangier)에서 영국인들을 몰아내고, 스페인 해변의 주요 지점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예로 구성된 대규모 군대를 투입시켰다.³⁾ 이스마일이 죽자 모로코에는 혼란과 기아가 잇달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모하메드 압둘라(Mohammed Abdullah 1757~1790) 황제는 경건하고 평화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죽고 난 후 아들들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암투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 후 19세기 동안 모로코는 가난과 고립으로 쇠약해져갔다. 몰라이 핫산(Moulay Hassan 1873-1894)은 통치기간 동안 권력을 잡고, 반란을 꾀하는 부족들을 정복하였다.

20세기 초 아프리카를 목표로 한 정탈전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몇몇 대륙 중 하나인 모로코를 지배하기 위해 서로 다투었다⁴⁾. 모로코는 1912년 페스 조약으로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고, 1912년 11월 프랑스가 서부 사하라 지역 및 모로코 남부 일부에 대한 스페인의 세력권을 인정함에 따라 프랑스 및 스페인의 세력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스페인 지배 지역은 스페인의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저조한 발전을 보인 반면 프랑스 지역은 모로코에 많은 자원을 보내 프랑스 양식으로 현대적 도로, 기차길, 공항 등을 건설하고 농장을 설계하였고 이런 개발로 인해 많이 변화하였다.

1956년 프랑스와의 협상 결과 모로코는 독립을 획득하여 모하메드(Mohammed)가 임헌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61년 모하메드 사망후 하산(Hassan) 2세가 즉위하여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다. 정부형태는 국왕중심제이며 국왕은 국가의 독립 및 영토보존의 보존자로서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으며 여름은 무덥고 건조한 반면 남부로 갈수록 반건조기후와 사막기후가 나타난다.

경제활동은 주로 서비스업, 농업, 광업에 기반을 둔 혼합경제로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비 숙련된 노동자가 넘치는 실정이다. 모로코 노동자의 40% 정도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의 생산력은 국가 수입의 20%정도에 불과하다. 광업과 인화석 가공업은 모로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전체 수출 수입액의 약 반 정도를 차지한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는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이 업종에 모로코 경제 활동 인구의 약 40%가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모로코 정부는 외화 수입과 새로운 유망 직종으로서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⁵⁾ 수공업이 다양하고 직인이 전수하는 기술이 존재하며 페스에는 소규모의 공방이 무수히 많으며 무두질한 가죽과 가죽 염색이 유명하다.

종교는 국민의 98%가 정통파인 말리키 율법을 따르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이며, 이슬람교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보다도 종교적, 문화적 관용이 허용된다. 소수이지만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도 있다.

III. 장신구의 역할 및 유래와 상징성

1. 역할

장신구는 장식을 위해 신체나 의복에 붙이는 복식 부속품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복장을 보다 완벽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브로치, 핀, 목걸이, 팔찌, 귀고리, 반지, 머리장식, 코사지 등 장식성이 강한 복식 공예품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금속이나 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전에는 씨앗, 곡식 낱알, 조가비로 만든 단순한 모양의 구슬로써 치장을 했다. 기원 전 30,000년경 유럽의 사냥꾼들은 동물의 뼈와 이빨로 만든 펜던트를 걸고 다녔는데, 이는 아마도 장식물로서뿐 아니라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적으로서의 역할도 했을 것이다. 돌에 구멍을 뚫거나 돌을 깎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신구의 다양성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⁶⁾

장신구의 재료는 조개껍질과 동물의 뼈와 어금니, 나무, 보석, 준보석, 진주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장신구는 아름다움과 퇴색·변질·부식 등이 생기지 않는 내구성과 사람들의 소유욕을 유발시키고 가치상승을 기대하게 되는 희소성과 불변의 가치로 통용될 수 있는 재산성을 가진 것이어야 했다.

장신구의 역사는 대부분 신분 계층의 표식이나 주술적인 상징으로 쓰이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치

장과 순수한 장식의 용도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북부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문양이 화려한 장신구들이 은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에티오피아와 수단에서는 이집트와 아랍의 영향으로 금 장신구가 그들의 족장을 위해서 또는 종교적 이유로 만들어졌다. 가나의 아산티(Ashanti)문명에서는 족장의 거주지역에 개인적인 금세공 공방을 둘 정도로 많은 장신구들이 만들어졌다.

2. 유래

모로코의 장신구는 의복을 여미기 위해 착용되었기 때문에 오직 장식의 목적으로만 착용하였던 서양의 장신구 형태와는 매우 다르다. 어떤 형태의 장신구라도 단일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라고 간주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예술적이고 신성한 완전체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⁷⁾

장신구들은 가정 경제에 유용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환전이 가능한 양질의 금은 세공품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내었다.⁸⁾ 특히 결혼식에 입는 신부의 의상과 장신구는 그 집안의 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신부의 순결과 가치를 높여준다고 여겨져서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기도 한다.

목을 쇠사슬로 묶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후손인 하라틴(Haratin)의 전설로 노예들에게 '목을 보호하라' 혹은 '목을 묶지마라'는 말이 코란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노예들이 해방되고 난 뒤에는 목걸이가 노예제도의 반대와 독립의 축하를 의미하였고 현재의 무셈(Moussem: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뜻함)이나 민간전승의 축제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목걸이는 자유와 기쁨을 나타낸다.⁹⁾

모로코에서 장신구를 제작하는 역사는 사하라를 가로질러 거대한 무역상인들의 이동뿐만 아니라 각자 계승된 결과로서 직조, 도제와 또 다른 전통물들의 발달과 비슷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 아라비아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기술과 재료들을 이어서 도입한 이슬람과 무어 양식적인 스페인에서 들어온 이슬람제국 양식은 아프리카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모로코의

장신구 형태에 영향을 주었다. 금은공예의 대부분은 주로 유대인 은 세공사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 에나멜을 입히는 기술과 니엘 상감 공예품과 금은 세공을 모로코인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로코의 장신구는 이와 같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장식과 부의 상징적인 수단으로서 초자연적인 근원과 여성들을 위한 종교적인 힘으로서 집합적이고 신성한 전통이 살아있다¹⁰⁾. 이것은 착용자들의 사회적·종교적·지리적인 배경을 밝혀줄 뿐 아니라 모로코의 예술적인 유산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알려주고 있다.

3. 상징성

모로코에서 장신구는 사색적이고 미학적인 힘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 속에 있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많은 유물들은 단지 그 외형 때문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형태나 그것을 치장하는 방법에 가치를 둔다. 그것들은 모로코의 종교적 신념과 모든 예술적인 전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개념인 바라카(baraka: 신의 축복)로 알려진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바라카는 모로코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의 절대적인 힘과 수피(Sufi) 친교에 기본적인 토대가 있다.¹¹⁾

많은 동물들의 형상은 매우 단순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뱀이나 전갈, 자칼(jackal: 유럽동남부·아프리카북부·아시아 등지에 서식하는 늑대와 비슷한 육식의 들짐승) 등의 가장 위험한 동물들의 묘사는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보호자로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예술적인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물고기 문양은 물과 비를 묘사한 것이며 때로는 땅과 총채산의 풍부함을 나타내고, 천국과 땅의 메신저로서 코란에 종종 쓰여져 있는 새는 특별히 상징적인 힘을 가진 독수리와 함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갈과 도마뱀은 태양의 탐구자로서 묘사되어지며, 빛에 관한 인간 영혼의 탐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뱀은 그 자체가 풍요와 성적충동의 상징으로서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

며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어진다. 이것은 장신구에 지그재그선이나 물결치는 듯한 선으로 단순하게 표현되거나 자세히 묘사되기도 한다. 거북이 문양은 장신구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것들은 악의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성인(聖人)들을 상징한다고 믿어진다.¹²⁾

장신구의 중요성은 단순히 장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정교한 형태 중 하나인 목걸이는 생일날에 받을 수 있으며 소녀들 뿐 아니라 소년들도 착용하였다. 이것은 가족이나 옷감을 만드는 실에 호박이나 열대산 수지의 유리알, 은으로 만드는 액막이, 팬던트나 캄자무니(Khamsa)로 구성될 수 있다.¹³⁾

장신구들은 대다수가 보호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악의 눈, 드존(djinn(佛): 아랍 신화의 악령), 사교, 뱀과 사랑하는 연인을 잃는 것에서부터 아이들을 쉽게 낳도록 도와주고, 남자아이를 낳고 질투를 떨쳐버리는 것을 도와준다. 모로코의 여성들에게 피블라는 다작(多作)과 다산(多産)의 결정적인 상징이며, 악의 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모로코에서는 장신구를 착용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뿐 아니라 부와 사회적 가치, 정체성, 다산성, 종교적인 믿음 등을 교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IV. 장신구의 분류

1. 소재와 형태

1) 소재¹⁴⁾¹⁵⁾

〈표 1〉

2) 형태

사람과 동물문양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이슬람에 반대하는 베르베르 문화의 애니미즘은 해, 달, 별, 동물류, 꽃들의 이미지와 함께 그들의 예술적인 표현 양식을 특징짓는다. 그 형태가 양식화되는 동안 이러한 것들은 거북이와 도마뱀, 전갈과 벌통과 뱀과 같은 모

양으로 만든 액막이, 팬던트와 자연물과 비슷한 모양으로 몸에 지니는 장식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¹⁶⁾ 아이트 아타(Ait Atta)지역사이에서는 이러한 몸에 지니는 장식품을 타슈로츠퉈(tachrouchts)라고 부르며 보호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1) 카즈마(Kahasma)¹⁷⁾

카즈마로 불리는 손은 주술적인 속성이 악의 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준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다섯이란 숫자를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악의 눈에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여겨지는 신부, 임신부, 아기들이 이러한 형태를 새긴 다양한 팬던트를 착용하였다. 이 형태는 장신구에 가장 다양한 형태를 제공한다 모으거나 퍼거나 열린 손은 사실적·추상적·양식적인 방법으로 그려질 수 있다(그림 1).

또 손모양 자체보다는 삼각형, 다이아몬드, 여덟개의 각진 별, 데이비드의 별 혹은 십자가들의 배열에 의해 묘사된 다섯 개의 숫자가 더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어떤 것들은 단순한 다섯 개의 점과 다섯 개의 선으로 발견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예언자 모하메드(Mohamed)의 딸인 파티마(Fatima)의 보호적인 손을 묘사한 것이다. 손을 그린 것이나 다섯 개의 숫자를 표시한 어떤 것이든지 착용하고 소유하는 것은 악의 눈을 손으로 찌르고, '캄자 피 에넥(khamsa fi ainek: 너의 눈 속에 있는 다섯)'이라는 단어를 말함으로써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믿어지고 있다.¹⁸⁾

(2) 거북이, 도마뱀, 뱀과 전갈문양

거북이나 도마뱀은 다산을 상징하며 간통을 막아주는 기능과 악의 기운을 피하게 해준다고 믿어진다. 또 뱀과 전갈문양의 장신구를 몸에 착용하면 뱀과 전갈에게 물리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으며 다작을 지켜주고 출산의 힘을 증진시켜준다고 믿었다.

(3) 눈

눈은 베르베르의 전통에서 병을 치유하는 모양으로 생각되며, 악의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그림 2).

<표 1> 장신구의 소재

소 재	특 징
은, 두로 (douro : 은동전)	'은' 은 모든 장신구를 가운데서도 중점적이고, 독점적인 첫 번째 재료이다. 베르베르인들에게는 은이 류마티즘을 치료한다고 믿어진다. 이것은 알라가 좋아하는 것이며 몸에 지니는 수많은 장식품과 액막이와 목걸이를 조합하는데 포함되는 피블라를 구성한다. '두로' 는 은으로 된 동전이다. 이는 한 세기 전의 황제였던 '몰라이 엘 핫산(Moulay el Hassan)' 이 주조한 동전으로 '하사니(hassani)' 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많은 동전들이 늘어뜨리는 장신구에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다.
금	금은 도시의 장신구에서 보여지며 지방의 전통적인 생산품들은 대부분 은으로 만들어졌다. 도시 장신구는 주로 아랍적이거나 유태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주로 금이나 금을 입힌 은으로 만들어지지만 베르베르인들 사이에서는 금은 악이라는 일반적 믿음이 있어서 은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호 박	노란색과 갈색의 호박이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거대한 목걸이로, 다른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진주모양의 형태로 목걸이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호박은 부의 상징으로서 주위로부터 보호해주고 향수와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믿어지고 있으며 악의 눈과 마법, 악령의 마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된다.
조 개	남쪽의 오아시스 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개를 많이 사용한다. 조가비나 나선형 조개와 삿갓조개와 같은 조개껍데기들은 수많은 머리장식과 목걸이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그것들은 전통적으로 무역상들에 의해 동아프리카로부터 교역하여 들어온 것이며, 이는 악의 눈을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산을 상징하고 있다.
석류석	석류석으로 둥글게 간 보석이나, 홍옥수를 박은 장신구는 옛날의 장신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홍옥수는 굴리미드(Goulime)와 타필레트(Tafilet)의 사막지역에서 발견되는 돌이며 신이 내려준 행운의 표식으로 사용된다.
유 리	등근 모양이거나 정사각형 모양으로 박은 간단한 조각이나 현란한 모양의 유리세공에 사용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유리는 유럽과의 교역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유입되었다.
니 엘 (nielle)	니엘(흑금, 니엘로 상감: 에나멜 유약)은 은으로 만든 작은 판들을 금속성의 번쩍거리는 검은 법랑으로 장식한다. 니엘로 상감의 기술은 아직도 사용되는 것으로, 조각물의 오목한 곳에 직접 법랑을 입히는 것인데, 판 표면에 법랑의 두드러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철보법랑	철보 법랑은 금속에 철보 무늬를 입히는 것으로서 니엘 법랑과는 구별되며, 유리를 사용하여 무늬를 만든다.
산 호	산호는 알라(Allah)를 찬양하고 치료하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었으며 코란에서 귀중하고 아름다운 돌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베르베르인들에게 오랫동안 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다작을 상징하며 악의 눈에 대항하는 힘을 제공하며 수많은 바라카(baraka)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가공된 산호보다는 가공되기 전의 산호가 더욱 큰 힘을 가진다고 믿어졌다.
나 무	나무로 만든 장신구를 단단하게 하려면 나무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니엘 상감이나 에나멜을 입히고, 금은 선세공 이나 두들겨서 밖을 도드라지게 하는 세공을 한다.
기 타	그 밖의 재료로, 아마존의 돌은 치유의 힘을 가졌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사용되었으며, 철구슬은 착용자에게 힘을 주입시킨다고 믿었다. 그 외에도 진주, 가죽 끈 등이 쓰이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같은 호사스러운 재료들도 쓰여졌는데 이런 고가의 보석이 없을 때는 가짜 보석이 대신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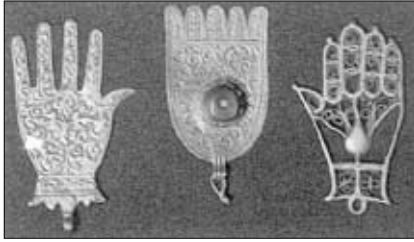
(4) 삼각형

삼각형의 피블라는 다산과 다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의 뾰족한 모양 때문에 악의 눈으로부

터 보호를 한다.

(5) 새와 알

새와 알은 신성하고 미술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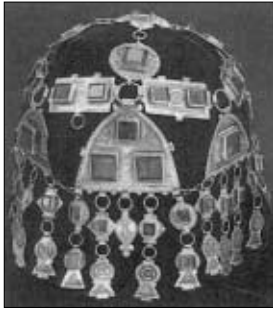
<그림 1> 카즈마 (Art & Crafts of Morocco,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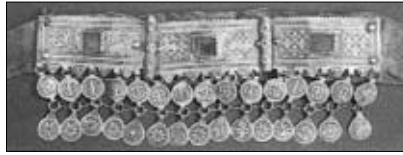
<그림 2> 눈 (Art & Crafts of Morocco,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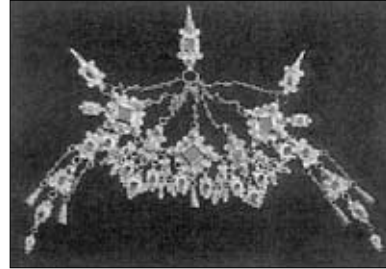
<그림 3> 머리장식-타즈, 가슴장식-메다이즈 (Costumes du Maroc, p. 11)



<그림 4-1> 머리장식-타운자 (Bijoux du Maroc, p.69)



<그림 4-2> 머리장식-타운자 (Bijoux du Maroc, p.70)



<그림 4-3> 머리장식-타운자(Bijoux du Maroc, p.49)

태의 부적이다.

2 종류

1) 머리장식

모로코 장신구의 다양한 형태는 머리장식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도시와 지방에 따라서 다른 장신구를 착용하며 부르는 이름도 지방에 따라 다르다. 머리 장신구는 왕관의 형태로 머리에 쓸 수도 있고, 작은 걸고리로 머리에 고정시키기도 하며, 머리와 함께 떨어거나, 머리사이에 놓여진다.¹⁹⁾ 또한 여러 종류의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한다.

(1) 타즈(Taj)

왕관의 형태로써 도시에서 착용되는 머리장식이다. 금으로 만든 왕관에 루비, 에메랄드 원석 다섯개를 박아 넣는다. 이 원석들은 형태에 따라 경첩으로 움직이는 것 위에 붙이거나 여러 두께로 만든 두꺼운 안감

위에 못난이 진주들을 깔고 그 위에 박아 넣는다.²⁰⁾ 얼굴 양 옆으로 늘어지는 폭포 형태의 못난이 진주 다발(zrair)과 녹색돌과 진주를 꿰어 만든 장식띠(setta)를 '타즈'와 함께 착용한다(그림 3).

(2) 타운자(Taounza)

'타운자'란 니엘 상감된 얇은 은장식판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머리장식을 총칭하는 말이다. 전형적인 '타운자'는 안티 아틀라스(Anti-Atlas) 중부에서 볼 수 있는 머리장식으로, 니엘 상감된 수 십 개의 은판들을 작은 고리들로 연결한다. '타운자'의 형태와 크기는 구성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눈썹까지 내려오며 머리를 완전히 두르는 형태이다. <그림 4-1>은 사각형의 붉은 유리알을 박은 니엘 상감 장식판이 머리 정수리까지 감쌀 수 있는 구멍 뚫린 투구형으로 구성되었고 범랑 윤색된 장식도 중간에 연결되어있다.

<그림 4-2>는 안티 아틀라스 중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형태로, 니엘 상감된 사각형의 장식판을 경첩으로 연결하고 경첩에는 범랑 윤색으로 장식하였고,

아래쪽에 작은 원판들을 두 층으로 달았다. 이 장식물은 가죽끈 위에 리벳(못)으로 고정되어 있고, 머리 뒤에서 가죽끈을 묶어서 착용한다.

〈그림 4-3〉은 타할라(Tahala)의 머리장식으로 노란색, 녹색, 하늘색으로 범랑 윤색된 작은 조각들과 세 개의 걸고리가 고리에 의해 연결되고 체인에 의해 전체적인 모양을 갖춘다.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지만 중요한 머리장식이며 여러 개의 모티브들로 구성되는 방식이 타운자에 해당된다. 머리쓰개 위에 걸고리로 부착시킬 수 있는 앞이마 장식판도 타운자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귀걸이가 연결되기도 한다.²¹⁾

티즈니(Tiznit)와 타프라우(Tafraout)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머리장식으로는 범랑으로 윤색된 금속판으로 구성된 왕관인데, 체인으로 연결되고 작은 갈고리들이 붙어있다. 금속 장식판에는 작은 사슬과 작은 고리, 범랑으로 윤색된 작은 금속 장식들이 주렁주렁 달

려 있다(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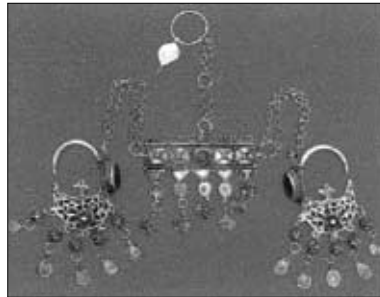
(3) 탈가무(Talgamout)

하이 아틀라스(High Atlas) 중부의 여인들이 착용하는 머리장식으로 앞 장식판과 귀걸이가 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형태인데 '타운자' 보다 크기가 작다. 앞에서 시작해서 머리 뒤쪽으로 향하는 체인의 모양새로 인해 '작은 고삐' 라는 뜻의 '탈가무' 라는 비유적인 이름이 붙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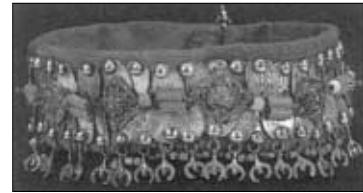
〈그림 5〉에서는 밑부분이 삼각형과 원형으로 재단되고 색깔있는 밀납을 입힌 범랑 윤색술과 공들여 장식한 장식판을 통해 아이트 우아우즈귀트(Ait Ouaouzguit) 장신구의 특징을 볼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장신구의 특징은 화려한 선세공이다. 이러한 형태는 안티 아틀라스에서 티즈니까지 다양하고 넓게 나타나며 타시바(tassibba)라고도 불리운다.²³⁾



〈그림 4-4〉 머리장식-타운자
(Bijoux du Maroc,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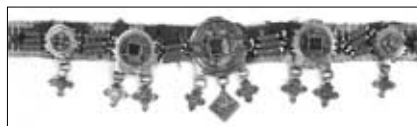
〈그림 5〉 머리장식-탈가무
(Bijoux du Maroc, p.101)



〈그림 6〉 머리장식-타스피
(Bijoux du Maroc, p.151)



〈그림 7〉 머리장식-티자진 마두
(Bijoux du Maroc, p.49)



〈그림 8〉 머리장식-메초 (Bijoux du Maroc, p.50)



〈그림 9〉 목걸이-티지라 (Art & Crafts of Morocco, p.81)

(4) 타스피(Tasfiit)

다데(Dades)계곡의 유태인 여자들은 매우 특이한 관을 쓴다. 터번처럼 이마 윗 부분에 둘러 쓰는 이 왕관은 다양한 이름과 모양이 있으며 작은 진주나 은, 은동전(hassani), 안쪽에서 두들겨서 걸을 도드라지게 만든 금속판, 고품질의 보석 등을 가죽이나 두꺼운 소재 위에 장식하는 것으로 머리장식의 범주를 완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²⁴⁾ <그림 6>의 관은 상당히 두꺼운 천 위를 얹은 짙은 은 장식판으로 완전히 뒤덮고, 주조된 펜던트들이 달려 있으며 산호와 여러 가지 구슬로 장식하고 있다.

(5) 티자진 마두(Tijajin d'mahdoun)

티즈니 지역의 유태인 여자들은 결혼할 때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해서 가발 형식으로 된 머리쓰개를 쓴다. 은실과 소 꼬리털을 섞어 이마 위 부분부터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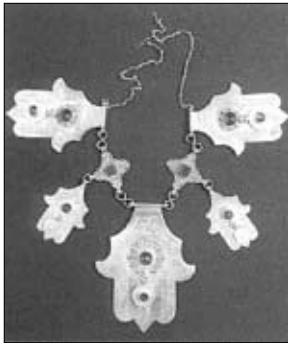
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모양으로 짠 후, 그 위에 은과 산호로 만든 몇 개의 구슬, 칠보자기로 장식한다(그림 7).

(6) 메초(Mechboh)

아사스(Akhsass)와 아멜른(Ammeln) 지역에는 '메초'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머리 장식관이 있다. 이 머리장식은 다섯 개의 얇고 동그란 은판을 이어 묶은 것으로, 은판 가장자리에는 복잡한 꽃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은판은 니엘로 상감으로 입혀지고, 범랑으로 윤색되어 아프리카로 장식되어 있다. 조각을 새기고 니엘로 상감을 입힌 마름모꼴의 장신구들이 늘어뜨려져 있다(그림 8).

2) 목걸이

목걸이는 여성 장신구의 가장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



<그림 10> 목걸이-티캄자틴 (Bijoux du Maroc,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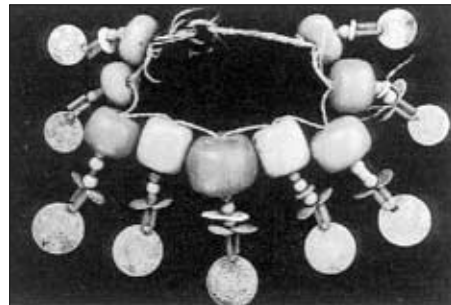
<그림 11> 목걸이-티필리 (Art & Crafts of Morocco, p.85)



<그림 12> 목걸이-타즈라 (Bijoux du Maroc, p.40)



<그림13-1> 목걸이-루반 (Bijoux du Maroc, p.13)



<그림 13-2> 목걸이-티피리 루반 (Bijoux du Maroc, p.84)

나로서 다양한 길이로 착용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씩 착용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것들은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슴받이의 형태로 가슴주위에 걸기도 한다.²⁶⁾

(1) 타자라(Tazara)

페스에서 착용하는 금목걸이로 줄에 펜 진주다발과 부조(浮彫)된 금막대와 세 개의 펜던트로 구성되었다. 펜던트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가 박힌 장미모양이며 매우 공들여 만든 장신구이다(그림 9). 신부가 결혼할 때 집안의 부(富)를 과시하기 위해 '타자라'를 착용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사치스러운 장신구와 결혼의상을 빌리기 위해 빛을 지기도 하였다.²⁶⁾

(2) 티캄자틴(Tikhamsatin)

마사(Massa) 지역에서 사용하는 '티캄자틴'이라 불리는 이 목걸이는 조각과 범랑으로 윤색된 손모양의 펜던트 3~5개와 노란색과 녹색으로 윤색된 장식판과 동전들로 구성된다(그림 10). 북아프리카 금은 세공품에서 '파티마의 손'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3) 티필리(Tifilit)

노란색과 녹색으로 범랑 윤색되고 투각 선세공된 달걀형 구슬(taguemmut)을 중심으로, 실에 펜 산호구슬 다발과 커다란 호박 구슬, 은동전, 체코슬로바키아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부피가 크고 고가의 장신구이다. 19세기에는 결혼식때 신부의 지참금으로 착용되었다(그림 11).

(4) 타즈라(Tazra)

안티 아틀라스 지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니엘 상감된 은 장식판들로 구성되는 목걸이로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며 베르베르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은 장식판에는 니엘 상감을 하였고 카보송(cabochons: 거칠게 세공한 원석)을 박아 넣기도 하며, 산호구슬과 호박 구슬을 중간에 끼워 만든다(그림 12). 베르베르인들은 '타즈라'를 수스(Souss: 수스 왕국의 보석이라는 뜻)보석이라고 부른다.²⁷⁾

(5) 루반(Loubane)

모로코 동부의 전역에서는 작은 호박구슬은 은으로

된 펜던트와 함께 목걸이를 만들고, 큰 호박구슬만으로 목걸이(loubane)를 만들때는 호박구슬이 서로 부딪쳐 깨지지 않도록 천으로 된 둥근 고리를 사이에 끼운다(그림 13-1).

어깨에 걸치는 큰 호박목걸이는 목에서 떨어져서 뒤쪽으로 늘어지며 호박구슬과 은동전, 산호, 색깔있는 돌로 이루어진 목걸이를 '티피리 루반(tifilit loubane)'이라고 하며 안티 아틀라스 지역에서 착용한다(그림 13-2).

3) 피블라

피블라는 항상 늘어지는 옷을 입는 여자들에게 가장 특유한 장신구로써, 베르베르의 모든 여성들이 적어도 한 쌍씩은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보급되어 있다. 피블라의 핀은 옷감을 고정시키고 동그랗고 끝이 열려진 링은 옷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²⁸⁾, 동시에 가문이나 가풍을 표시하기도 한다.

(1) 브짐(Bzim)

'브짐'은 맥네스(Meknes)와 같은 도시의 여성들이 의식을 행하는 동안 입을 의복에 다는 피블라이다.²⁹⁾ 다른 지역의 피블라에 비해 크기가 작고 금으로 되어 있으며 동그란 형태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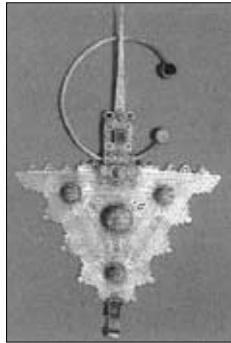
(2) 티제자이(Tizerzai)

티즈니에서 타프라우, 마사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티제자이'라고 불리는 삼각형의 피블라가 가장 흔하면서 특색이 있는 장신구이다. 삼각형의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으로 되어 있고, 녹색과 노란색의 범랑을 입힌 반구형 장식이 붙어있다(그림 15-1). 이런 피블라는 티즈니가 피블라의 원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티즈니의 피블라'라고도 불리운다. 이 피블라는 크기가 크고 가끔은 30cm나 되는 것도 볼 수 있다.³⁰⁾

삼각형 피블라 중에서 벌레먹은 나무판처럼 무수히 많은 구멍이 뚫린 피블라를 '벌레먹은 피블라'라는 뜻으로 '티제자이 타우카(tezerzai n taouka)'라고 부른다. 은으로 작은 원을 만들어 하나 하나 조밀하게 붙여 놓은 후 틀에 박아 넣는다. <그림 15-2>의 벌레먹은 피블라는 회교도를 상징하는 두 개의 초승달이 핀의 아래부분을 둘러싸고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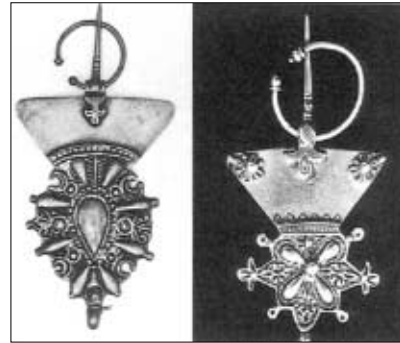
<그림 14> 피블라브짐
(Costumes du Maroc, p.201)



<그림 15-1> 피블라-티제자이
(Bijoux du Maroc, p.28)



<그림 15-2> 피블라-티제자이
타우카 (Bijoux du Maroc,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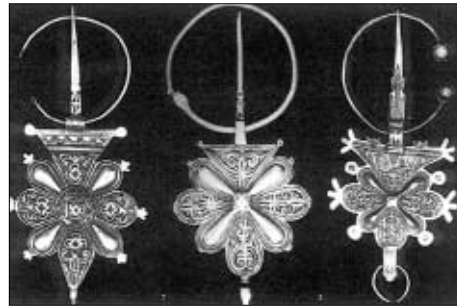
<그림 16-1> 피블라-티제르나
(Bijoux du Maroc, p.137)



<그림 16-2> 피블라-티제르나 암리아
(Bijoux du Maroc, p.118)



<그림 17> 피블라-티쿨라린
(Bijoux du Maroc, p.163)



<그림 18> 피블라-이제르라이 (Bijoux du Maroc, p.163)

(3) 티제르나(Tisernas)

중부 하이 아틀라스의 동부에서 착용되는 피블라는 사다리꼴의 매끈한 판과 복잡하게 주조된 부조를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매끈한 판과 연결되는 핀의 아래 부분은 작은 꽃송이 장식으로 고정된다. 부조물은 십자가 모양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아몬드 모양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뿔어나가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그림 16-1).³²⁾

중부 하이 아틀라스의 남쪽에 위치한 프움즈귀(Foum Zguid)의 아이트 우아우즈귀트의 여인들은 배(梨)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피블라를 착용한다. 이 피블라는 둥근형으로 주조되었고, 펜던트는 선세공되었는데 가운데에 있는 나사뿔에 의해 열릴 수 있다. 또한 펜던트에는 5개의 작은 동전들이 달려 있다(그림 16-2).³³⁾

‘티제르나’ 두 개를 두꺼운 체인이나 끈으로 연결시켜 착용하는데 이를 ‘티제르나 암리아(tisernas amriya)’라고 한다.³⁴⁾

(4) 티쿨라린(Tikhoullalin)

베르베르어로 ‘티쿨라린’이라 불리는 하이 아틀라스 서쪽 지역의 피블라는 삼각형 모양인데 납작하고 크기가 상당히 크다. 주조술이 아닌, 망치로 은을 두들겨서 얇게 편 후 매우 정교하게 표면을 조각하는 예외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진다(그림 17).

(5) 이제르라이(Iserlai)

수스(Sous)계곡 전역의 베르베르 여인들은 매우 예쁘게 주조된 피블라를 착용하는데 지역마다 평범한 이름으로 불리며 가장 고전적인 패턴이다. 십자모양으

로 배치되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조물의 형태적 특성상 하이 아틀라스 동부의 피블라(tisernas)와 연관되어 있지만 결코 유사하지는 않다(그림 18).

4) 가슴장식

두 개의 피블라가 체인으로 이어져 있거나, 중앙의 다른 장식물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며, 목걸이도 때론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슴받이의 형태로 가슴주위에 걸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가슴장식이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걸이나 피블라 또는 머리장식에서 변형되어 가슴부분을 장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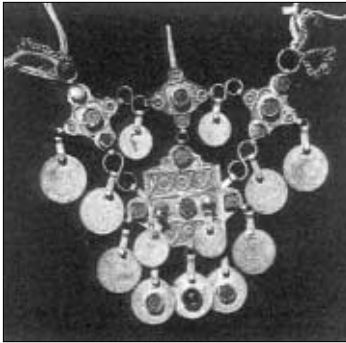
(1) 피블라를 이용한 가슴장식

티즈니와 타프라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녹색과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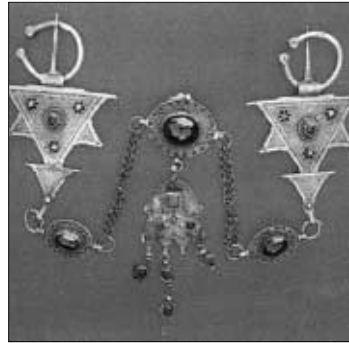
란색의 에나멜로 윤색된 장식판과 동전으로 구성된 가슴장식이 있는데 중앙의 큰 부피의 장식을 옷에 고정시키기 위한 작은 갈고리를 볼 수 있으며(그림 19), 타탈(Tatelt)지역 고대의 가슴장식으로써 두 개의 '벌레 먹은 피블라' 사이에 에나멜과 부피가 큰 카보숑으로 장식되고 노란색과 흐린 녹색, 파란색으로 범랑 윤색된 펜던트가 체인으로 연결되고 또 다른 작은 펜던트가 달려있는 형태도 있다(그림 20). 그리고 피블라, 체인 그리고 선세공된 펜던트로 구성된 가슴장식을 볼 수 있다(그림 21).

(2) 목걸이를 이용한 가슴장식

중부 아틀라스의 가슴장식으로 <그림 22>는 은으로 니엘 상감한 여러 개의 장식판으로 구성된 가슴받이이고, <그림 23>은 타즈라차이트(tazra-n-chait)이며, <그



<그림 19> 가슴장식 (Bijoux du Maroc, p.36)



<그림 20> 가슴장식 (Bijoux du Maroc, p.66)



<그림 21> 가슴장식 (Bijoux du Maroc, p.115)



<그림 22> 가슴장식 (Art & Crafts of Morocco, p.75)



<그림 23> 가슴장식-타즈라차이트 (Costumes du Maroc, p.26)



<그림 24> 가슴장식 (Art & Crafts of Morocco, p.93)

림 24)는 자르지 않은 산호와 사이사이에 은판으로 구성된 두 줄의 조합으로 가슴받이로 사용되는 형태이다. <그림 3>은 '브제타(bseta)'라고 하는 가슴판(breastplate)위에 장식이 놓여진 가슴장식으로 옥과 레바(lebba)로 만든 조임쇠로 고정시키는 '메다이즈(medaij)'라는 가슴받이이며 목에는 걸지 않는다.

5) 귀걸이

모로코의 장신구 중에서도 귀걸이는 매우 아름답고 우아하다. 특히 티즈니 지역에서는 과시를 위한 장식으로 귀 부근에 많은 장신구를 단다. 다양한 형태의 귀걸이가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도시의 귀걸이는 크기가 작고 금으로 만들어지며, 지방으로 갈수록 크고 은제품이 많다.

커다란 링 형태의 귀걸이들은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과 측면에서 보이는 부분 모두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상당히 무겁고 굵은 귀걸이도 컷볼을 뚫어서 착용하며, 때때로 작은 곁고리가 달린 귀걸이는 귀 근처, 관자놀이 부근에 걸기도 한다.

(1) 두슈(Douch)

티즈니, 타할라, 마라케쉬(Marrakesh) 등지에서 통용되는 귀걸이로 직경 8cm 정도의 크고, 열려있는 원형이며 열려진 끝은 뾰족하다. 링의 안쪽에는 비둘기 발 모양의 장식이 튀어나와 있고, 5~9개의 펜던트가 달려 있다. 귀걸이는 조각술로 장식되고 앞면과 곁꼴형

의 펜던트에는 범랑 윤색으로 아플리케 한다(그림 25). 이런 귀걸이들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컷볼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체인이 달려 있다. 간혹 이 체인은 앞이나 장식과 연결되는 특이한 형태를 만들어낸다.³⁹⁾ 고전적인 옛 장신구들의 형태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 티자다드(Tizadad)

베르베르어로 '티자다드'라고 부르는 펜던트형 귀걸이는 이다(ida)와 셈랄(Semlal) 지역의 가장 전통적인 귀걸이 형태다. 컷볼에 거는 부분은 매우 단순하고, 고리에서 연장된 작은 장식판이 있으며 원형의 펜던트가 달려있고 전체적으로 니엘 상감되고 펜던트에만 범랑 윤색으로 치장되어 있다(그림 26). 주로 금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펜던트형 귀걸이는 '마타이사(mataychat)'라고 부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알라카(halaqat)'라고도 부른다.³⁹⁾

(3) 티쿠르신 우글닌(Tikhoursin uguelin)

베르베르어로 '티쿠르신 우글닌'이라 불리는 이에름(Iherm)지역의 귀걸이는 정교하고 섬세하게 니엘 상감되어 있는데 형태가 매우 다른 두 종류가 있다.

하나, 컷볼을 통과하는 링 부분이 직경 1.2cm 정도로 작고 원형과 사다리꼴이 합쳐진 모양의 커다란 펜던트가 달려있는 형태이다. 이 귀걸이는 귀에 직접 걸기도 하고 머리 장식띠에 매달아 귀 근처를 장식하기도 한다(그림 27-1).



<그림 25> 귀걸이-두슈
(Bijoux du Maroc, p.54)



<그림 26> 귀걸이-티자다드
(Bijoux du Maroc, p.57)



<그림 27-1> 귀걸이-티쿠르신 우글닌
(Bijoux du Maroc, p.88)



<그림 27-2> 귀걸이-티쿠르신 우글닌
(Bijoux du Maroc, p.90)

또 다른 형태는 컷볼을 통과하는 고리가 크고 가늘며, 커다란 링의 아래 부분이 납작한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있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며 연한 녹색과 파란색으로 윤색되어 있다. 초승달의 중앙에 붉은 카보숩을 박아 넣었고, 착용시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에도 작은 장식들이 달려있다(그림 27-2).

6) 팔찌

팔찌는 여성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신구 중의 하나이다. 팔찌의 모양과 크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경첩 달린 팔찌', '완전히 열린 팔찌', '원형 팔찌'로 형태를 구분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니엘 상감되거나 선세공, 주조법 등으로 특색있게 장식된다. 팔찌와 발찌는 폭이 매우 다양하며, 여성들이 남편의 부에 의지하며 언제나 한 쌍 또는 많은 쌍으로 착용된다.³⁷⁾ 재료로는 금, 은, 금과 은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1) 탕벨(Tanbelt)

경첩을 이어만든 팔찌를 베르베르어로 '탕벨'이라 하며, 특히 티즈니 지역에서 널리 애호되는 장신구이다.

티즈니의 팔찌에는 녹색, 노란색, 연한 파란색 범랑으로 아플리케 되어 있고, 간혹 니엘 상감을 하기도 한다. 경첩 부분은 원통 장식으로 가려져 있고, 경첩에 의해 팔찌는 열릴 수가 있다. 팔찌는 항상 쌍으로 착용되며, 현재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그림 28).

(2) 아즈비 니쿠란(Asbig n'iqur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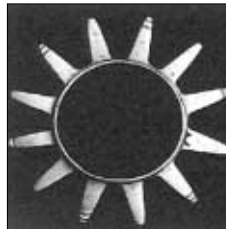
주조법으로 만들어진 은 장신구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아이트 아타의 여인들이 착용하는 열 두 개의 돌기가 있는 팔찌이다(그림 29-1). 이 팔찌는 매우 무겁지만 단독으로 착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깊은 이랑 무늬가 있는 두꺼운 팔찌를 '아즈비(asbig)'라고 하는데, 은으로 주조되었고 매우 육중하며 단순한 형태이다(그림 29-2). 이 팔찌는 돌기가 있는 팔찌와 같이 착용하며, 무거운 두 팔찌 사이에 살이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죽으로 된 팔찌를 중간에 낀다.³⁸⁾ 이들은 600~900그램의 팔찌를 양 손목에 끼고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해내고 있다.

(3) 아즈베(Azbeq)

'아즈베'란 '열린 팔찌(경첩으로 연결되지 않고, 끝



<그림 28> 팔찌-탕벨 (Bijoux du Maroc, p.58)



<그림 29-1> 팔찌-아즈비 니쿠란 (Bijoux du Maroc, p.159)



<그림 29-2> 팔찌-아즈비 니쿠란 (Bijoux du Maroc, p.159)



<그림 30> 팔찌-아즈베 (Bijoux du Maroc, p.94)



<그림 31> 반지 (Costumes du Maroc, p.204)



<그림 32> 반지 (Bijoux du Maroc, p.91)

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 팔찌'를 일컬으며, 열린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독특한 형태이다.³⁹⁾ 안티 아틀라스의 팔찌에는 전체적으로 니엘 상감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장식이 붙어 있다. 그러나 최상품의 경우에는 장식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진다(그림 30). 아이트 하디두(Ait hadiddou)에서 발견되는 열린 팔찌는 주로 미혼의 소녀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⁰⁾

7) 반지

모로코 남쪽의 반지는 아랍어로 '카템(khatem)' 또는 베르베르어로 '타카텐(takhaten)'이라고 불리는데, 패턴의 범위가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장식이 나타내는 대상으로 이름을 붙인다. '새모양의 반지(khatem et teya)'는 고대의 패턴으로 원래는 유태인의 것이었지만 아랍여성들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림 31>은 아이트 세르헨느(Ait Serrhouchene)와 마르무샤(Marmoucha) 부족 사이에서 결혼반지로 간주되며 작은 펜던트가 달려있다.⁴¹⁾ <그림 32>는 안티 아틀라스 지역의 네 손가락을 위한 니엘 상감된 반지이다.

반지는 손가락에 착용하는 것이 정상이나, 머리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여(그림 33) 머리띠 위에 열다섯 개가 넘는 반지들을 고정시키는가 하면, 이사펜(Issafen) 지역에서는 목걸이로 사용하기도 한다(그림 34).

티즈니 지역의 반지는 쪽색과 노란색의 금속법랑이 입혀져 있고, 녹색 보석이나 법랑으로 윤색한 곁돌모

양의 장식을 많이 사용한다(그림 35). 훨씬 남쪽에 위치한 아사스(Akhsass)의 보석 세공인들은 니엘 상감을 입힌 반지를 제작한다. 하이 아틀라스의 동부 지역인 토드라(Todrha) 계곡에서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주조된 반지를 착용한다. 복잡하게 조립되는 모로코의 장신구는 '원시적인 것'을 특징으로 다른 문화권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세련된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모로코 여성들의 독창적인 창조성을 표현한다.

V. 화장과 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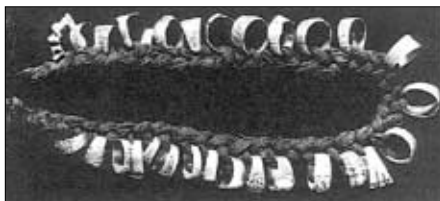
1. 화장의 개념 및 기원

화장이 시작된 동기는 미적본능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장식설, 이성유인설, 피부의 보호와 건강을 위해 행해졌다는 보호설, 주술적인 종교설, 그리고 결혼의 유무나 성별, 사회적 지위, 계급, 부족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설 등으로 설명된다.⁴²⁾

옷을 입기 이전의 원시인류는 화장을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고 싶은 욕망을 본능적으로 장식에 의해 추구하였다. 전투에서 승리한 전사의 몸에 남겨진 상처와 피가 부족민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용맹의 상징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배자들은 다양한 색깔의 진흙을 얼굴, 머리, 몸에 칠했다. 타인을 의식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 심리와 욕구에서 발



<그림 33> 반지(머리띠용) (Bijoux du Maroc, p.91)



<그림 34> 반지(목걸이용) (Bijoux du Maroc, p.170)



<그림 35> 반지 Bijoux du Maroc, p.181



<그림 36> 화장 (Bijoux du Maroc, p157)



<그림 37> 화장 (Bijoux du Maroc, p.147)



<그림 38> 화장 (Bijoux du Maroc, p11)



<그림 39> 헤나염색 (MorningClam 2000 Oct, p.91)

생한 장식설을 가장 자연스럽게 타당성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원시인류가 피부에 상처를 내서 만든 상흔(scarring)이나 피부에 상처를 만들고 색소를 넣어 그림이나 문자 등을 영구적으로 나타내는 문신(tattoo)은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는 수단이 되며, 악마로부터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믿었다. 특히 문신은 피부색같이 검은 민족과 중국인들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편화되어왔다. 문신도안은 사람들의 지위, 신분, 소속을 표시하기도 하고, 질병이나 악령,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원시인류의 문신에 대한 근거로는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미이라에서도 문신이 발견되었고 그리스인, 갈리아인, 고대 게르만인, 고대 영국인들도 문신을 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출현 이후 유럽에서는 문신이 금지되었지만 중동지역과 세계 여러 곳에서는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다.⁴³⁾ 고대 이집트 여인들의 짙은 눈 화장은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했고, 향료는 곤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화장은 심리적, 물리적 보호의 수단이 되었다.

화장은 미적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본능적인 것이며, 성별, 사회적 지위, 부족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부족의 보호를 위한 실용적이고, 의식적 종교적인 것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는 반흔(瘢痕), 피부에 안료를 칠하는 도채(塗彩), 문신(文身) 등의 주술적인 것도 화장의 범주에 포함된다.

원시형태의 장식이 존재하고 주술적 종교적 의미의 화장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모로코의 베르베르의 여성들은 해박한 화장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화장은 장식의 수단이며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2 화장품의 원료 및 화장방법

모로코의 여성들은 두꺼운 화장을 하는데 얼굴 화장의 기본은 빨강색이나 녹색 분가루이다. 안티모니(antimony)로 만든 검정색 콜(khol)로 눈꺼풀과 눈 외곽선을 칠하고 하르쿠어(harquous)로 눈 아래 부분을 검게 칠하여 눈의 윤곽을 뚜렷이 하고, 식물성 염료인 아커(aker)로 입술을 붉게 강조하고 뺨에도 동글고 붉게 화장한다. 가끔 아랫입술은 적갈색의 속(souak)으로 문지르기도 한다. 특히 동글고 붉게 그려진 뺨과 꿀을 바른 듯한 입술화장의 붉은색은 나쁜 시선을 물리쳐 준다고 믿고 있다. 눈썹을 노란색 사프란(saffran) 가루로 칠게 하는 것도 나쁜 악마의 기를 꺾는다고 한다. 턱은 호도나무 껍질을 칠해서 문신하듯 불투명하게 보이도록 한다(그림36, 37, 38).

이집트산 부처꽃과의 열대식물인 헤나(henna)에서 추출한 적갈색의 염료를 손과 발에 칠하는데 소용돌이 모양, 아라베스크 문양 등의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문양을 그리거나 스텐실로 대고 찍기도 하면서 화려하게 장식한다.⁴⁴⁾ 헤나문신은 고대 이집트의 귀족들이 멋을 내기 위해 헤나꽃에서 추출한 염료로 머리와 수

염을 물들이고 얼굴과 손, 발 등에 꽃모양이나 여러 가지 문양을 그려넣은데서 시작되었는데 살결대로 갈라지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모로코에서 헤나는 '여언자의 빛'이라 불렀고 '신의 축복(바라카)'과 '정화(purification)'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헤나 염료를 화장품, 머리염색과 문신 등에 사용한다. 기혼녀나 과부들은 헤나로 머리염색을 하고 축제에 모여 헤나염색이 잘되었는지를 경쟁할 정도로 보편적이다(그림 39).

신부(新婦)의 화장도 콜로 눈을 어둡게 하고 볼과 입술을 붉게 칠한다. 신부의 손에는 헤나 패턴으로 장식되고, 셀(Sale)과 라바트 지역에서의 특징적이고 복잡한 화장은 붉은 염료 아커와 비오 루자(bioud l'oujah)라는 특수한 흰 물질로 만든다. 이것은 신부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특이하게 페이스 출신의 유대인 신부는 아랍 신부의 얼굴처럼 약간 붉고 하얀 점들로 장식한다.⁴⁵⁾

이처럼 모로코 여성들의 화장은 멋을 내기 위해서 뿐 아니라 악마나 사악한 기운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턱에 하는 화장만이 유일하게 화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문신

1) 문신의 상징적 의미

문신은 주로 여성들이 하는데, 그녀들이 속해있는 사회적인 조직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표시물로 간주되고 있다. 모로코의 여성들은 결혼할 때가 되었거나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문신을 한다. 여러 번 결혼한 여성은 결혼한 횟수만큼의 문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의 문신은 그녀가 관련되어있는 사회적인 단체와 외부와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한다.

때때로 문신은 병의 예방 및 치유의 효과를 지녔다고 믿고 있어서 다친 부분에 문신을 새겨 넣기도 한다. 어린아이에게는 코 위의 작은 선이 설사를 예방하고, 뺨의 다른 문양은 기침을 고친다고 한다.

남성들이 하는 문신은 위험이나 실패로부터 남성을 보호하는 문신과 위험한 상황에서 힘을 주기 위한 문

신의 경우 코, 손, 오른쪽 어깨에 위치한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문신의 문양과 위치가 매우 광범위하다. 몸의 앞부분, 턱, 볼, 목, 가슴 뿐 아니라 팔과 발, 때로는 넓적다리와 배꼽에까지 위치할 수 있다. 또한 문신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증대시킨다고 여긴다. 문신의 실제적인 위치는 미용법의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으며, 신체의 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개선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팔과 손가락, 손목의 문신은 동적인 명암과 정교함을 몸짓으로 표현하는데 쓰이고, 가슴과 음모 가까이 문신은 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발목 근처의 문신은 악의 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성 신체의 뒷부분에 위치한 몇 개의 특별한 문신은 생식력이 없는 것을 막아주거나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⁴⁶⁾

모로코에서는 문신을 대단히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만, 지역과 부족에 따라서 문양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으며 문신만 보아도 어느 하위그룹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집단에 큰 일이 있을 때 모든 여인들이 동일한 장식의 목적으로 얼굴에 많은 문양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린다. 그들이 사용하는 염료는 하르쿠스의 검은색, 아커의 붉은색, 샤프란의 노란색 등이다.⁴⁷⁾

모로코인들의 문신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장식의 기능과 치유, 보호의 능력을 지니고 있고 예술적인 전통에 의해 사용되는 문신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신을 통해 여성들은 이슬람 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자신을 표현하는

<표 2> 문신의 위치에 따른 속성

성별	문신의 위치	속 성
여 성	팔, 손가락	동적인 명암과 정교함을 몸짓으로 표현
	손목	현, 악의 기운을 피하게 하는 역할을 함
	가슴, 음모부분	여성의 관능성을 증가시킴
	발목	악의 기운으로부터 보호해 줌
	몸 뒷부분	생식력의 저하를 방지하거나 치유
남 성	코·손	위험이나 실패로부터 남성을 보호하는
	오른쪽 어깨	의미를 가짐
	손목·손	병의 치유와 악의 기운으로부터 보호해 줌
어 린 이	코	설사를 예방해 줌
	뺨	기침을 치료해 줌

수단이 되고 있다.

2) 문신의 위치에 따른 속성

〈표 2〉

VI. 결론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단에 있는 국가로서 역사는 B.C 2000년대말 베르베르 족이 모로코에 들어와서 시작되었으며 종교는 국민의 98%가 이슬람교도이다.

장신구의 역할은 장식을 위해 신체나 의복에 붙이는 복식부속품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복장을 완벽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장식성이 강한 공예품을 말한다. 모로코 장신구는 대부분 신분계층의 표식이나 주술적인 상징으로 쓰였다.

유래는 의복을 여미기 위해 착용되었기 때문에 장식의 목적만은 아니었다. 또 장신구들은 가정경제에 유용한 역할을 하기도 하며 환전이 가능한 금·은 세공품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내었다. 특히 신부의 의상과 장신구는 그 집안의 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신부의 순결과 가치를 높여준다고 여겨서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기도 한다.

장신구의 상징성은 초자연적인 힘 속에 있는 믿음을 뒷받침하며 외형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치장하는 방법에 가치를 둔다.

또 장신구는 종교적 신념과 예술적 전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개념인 신의 축복으로 알려진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동물들의 묘사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보호자로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모로코의 예술적 전통에서 물고기 문양은 물과 비를 묘사한 것이며 독수리와 새는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갈과 도마뱀은 태양의 탐구자로서 묘사되어지며 빛에 관한 인간영혼의 탐구를 묘사하고, 뱀은 풍요와 성적충동의 상징과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거북이 문양은 악의 힘으로부터 보

호하는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성인을 상징한다.

이처럼 모로코의 장신구는 악으로부터 보호적인 의미와 다작(多作)과 다산(多産)의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신구의 소재는 금, 은, 호박, 조개, 석류석, 유리, 니엘, 에나멜, 유약, 칠보법랑, 산호, 나무 등이 장신구에 쓰인다.

장신구의 형태는 다섯이란 숫자를 상징하는 손과 거북이, 도마뱀, 뱀과 전갈, 눈, 삼각형, 새와 알 등의 상징적인 문양을 사용하여 이러한 장신구를 지니므로써 보호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장신구의 종류는 머리장식, 목걸이, 피블라, 가슴장식, 귀걸이, 팔찌, 반지로 구분되며 다양한 형태의 머리장식에서 도시와 지방에 따라 다른 형태를 착용하며 명칭도 다르며 왕관의 형태로 머리에 쓸 수도 있고 작은 걸고리로 머리에 고정시키기도 한다. 또 머리와 함께 닿거나 머리 사이에 놓여지기도 한다.

목걸이는 여성 장신구의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서 길이가 다양하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착용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것들은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슴받이의 형태로 가슴주위에 걸기도 한다. 피블라는 항상 늘어지는 옷을 입는 여자들에게 특유한 장신구로서 모든 여성들이 적어도 한 쌍씩은 소유하고 있으며, 피블라는 옷감을 고정시키고 동시에 가문이나 가풍을 표시하기도 한다. 가슴장식은 두 개의 피블라가 체인으로 이어져 있거나 다른 장식물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목걸이와도 같이 걸기도 한다. 귀걸이는 형태가 다양하나 도시의 귀걸이는 작고 금으로 만들어지며 지방으로 갈수록 크고 은 제품이 많다. 팔찌는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지만 경첩달린 팔찌, 열린팔찌, 원형팔찌로 구분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상감되거나 선세공, 주조법 등으로 특색있게 장식된다. 반지는 손가락에 끼는 것이 정상이나 머리장식, 목걸이 장식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서 형태와 명칭이 다르며 네손가락을 위한 니엘상감된 반지도 있다. 복잡하게 조립된 모로코의 장신구는 원시적인 것이 특징으로 다른 문화권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세련된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모로코 여성들의 독창적인 창조성을 표현한다.

화장은 미적,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본능적인

것이며 성별, 사회적 지위, 부족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보호를 위한 실용적이고 의식적, 종교적인 것으로 피부에 상처는 내는 반흔(瘢痕), 피부에 안료를 칠하는 도채(塗彩), 문신 등의 주술적인 것도 화장의 범주에 포함된다. 화장품의 원료는 식물성 염료인 아커로 입술을 붉게 강조하고 뺨에도 등글고 붉게 화장하며 나뻘 시선을 물리쳐준다고 믿고 있다. 눈썹은 노란색 샤프란 가루로 짙게 칠하여 나뻘 악마의 기를 꺾는다고 한다. 턱은 호도나무 껍질을 칠해서 문신하듯 불투명하게 보이게 한다. 문신은 주로 여성들이 하며 그녀들이 속해있는 사회적 조직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표시물로 간주하고 결혼할 때가 되었거나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문신도 있다. 여러번 결혼한 여성은 결혼한 횟수만큼의 문신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문신은 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과를 지녔다고 믿으며 다친 부분에 문신을 새겨 놓기도 한다. 어린아이에게는 코위의 작은 선이 설사를 예방하고 뺨의 다른 문양은 기침을 고친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문신의 위치에 따라서 아름다움도 증대시키고, 미용법에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뀔 수도 있다.

문신에 사용하는 염료는 하루쿠스의 검은색, 아커의 붉은색, 샤프란의 노란색 등이 쓰인다.

이와 같이 모로코인은 장신구의 형태와 치장하는 위치, 또 화장법과 문신 등이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의미와 방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주술적이고 상징적, 초자연적인 힘 속에 악에서부터의 보호와 병을 치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로코의 화려하고 과대한 장신구는 예술적인 유산으로 부와 지위도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서울 :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1995), p. 548.
- 2) 앞글.
- 3) 중앙교육연구원,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서울 : 평화당, 1994), p. 10.
- 4) Brain Bell, Insight Guide MOROCCO, (HK: APA, 1995), p. 49.
- 5) 중앙교육연구원, 앞글, p. 15.
- 6) 클레어 필립스 저, 김숙 역, 「장신구의 역사」(서울: 시공사, 1999), p. 7.
- 7) Jean Thepegnier, Maroc, (Paris: ACR Edition, 1997), p. 73.
- 8) Jacques et Marie-Rose Rabaté, Bijoux du Maroc, (Paris: EDISUD, 1996), p. 13.
- 9) Jean Thepegnier, 앞글, p. 76.
- 10) 앞글, p. 80.
- 11) James F. Jereb, Art and Craft of Morocco, (LD: Thames and Hudson, 1995), p. 13.
- 12) 앞글, p. 20.
- 13) Jean Thepegnier, 앞글, p. 75.
- 14) 앞글, pp. 74~79.
- 15) Jacques et Marie-Rose Rabaté, 앞글, p. 14.
- 16) Jean Thepegnier, 앞글
- 17) 카즈마(Kahasma) :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과 힘과 지배의 상징.
- 18) James F. Jereb, 앞글, p. 21.
- 19) Jean Thepegnier, 앞글, p. 76.
- 20) Jean Besancenot, Costume of Morocco, (Aix-en-Provence: EDISUD, 1990), pp. 144~145.
- 21) 앞글, p. 78.
- 22) 앞글, p. 101.
- 23) Jean Besancenot, 앞글, p. 171.
- 24) 앞글, p. 185.
- 25) 앞글, p. 75.
- 26) James F. Jereb, 앞글, p. 81.
- 27) Jean Besancenot, 앞글, p. 202.
- 28) Jacques et Marie-Rose Rabaté, 앞글, p. 12.
- 29) Jean Besancenot, 앞글, p. 146.

- 30) Jacques et Marie-Rose Rabaté, 앞글, p. 29.
- 31) 앞글, p. 30.
- 32) 앞글, p. 136.
- 33) 앞글, p. 117.
- 34) Jean Besancenot, 앞글, p. 160.
- 35) 앞글, p. 169.
- 36) 앞글, p. 163.
- 37) Jean Thepegnier, 앞글, p. 76.
- 38) Jacques et Marie-Rose Rabaté, 앞글, p. 159.
- 39) 앞글, p. 92.
- 40) Jean Besancenot, 앞글, p. 169.
- 41) 앞글, p. 204.
- 42) 이현주, “화장으로 읽는 여성문화 연구” (석사 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1999), p. 7.
- 43)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앞글, p. 120.
- 44) Marie-Pascale Rauzier, Moussems et Fête Traditionelles au Maroc, (Paris: ACR Edition, 1991), p. 98.
- 45) Jean Besancenot, 앞글, p. 145.
- 46) James F. Jereb, 앞글, p. 23.
- 47) Jean Besancenot, 앞글, p. 166.